

## 부루노, 바우흐(四)

現代 世界 唯一民族 哲學者

安浩相

人生은 肉體生과 精神生의 全體生이다. 人生觀이 人生을 안 것일 진대는 肉體生을 안 것이 人生觀인가? 精神生을 안 것이 人生觀인가? 精神生을 안 것이 그 人生觀<sup>냐</sup>고 바우흐는 말하였다. 웨그러야 하면 肉體生은 生物學이 觀察할 對象이오. 결코 哲學이 觀察할것이 아닌 새문이다. 生物學이 人類의 由來와 人體의 構成細胞를 發見하였다. 人類의 始祖는 원숭(猿)이오. 人體의 細胞는 原形質로서 또 生은 活力을 통해서 된다고 한다. 이와 가튼 生物學的 考察을 다 올타고 하며 또 이보담 더 낮은 意見이 업스리라고 假定하자. 그러나 人間을 다못 生物學的으로 안 것을 결코 人生觀이라고 할 수 업다. 웨그러야 하면 人生觀은 人生의 哲學이오. 人間의 生物學이 아닌 새문이다. 一般意識이 말하는 그 人生觀의 概念에는 결코 生物學的 要素가 드러잇는 것이 아니다. 「소크라데스」의 人生觀이 偉大케된 것은 결코 人類의 由來와 人體의 構成細胞와 肉體生의 自然法則을 아라낸 새문이 아니다. 또 「**씨르빈**」과 「**헝켈**」이 人類의 起源과 人體를 構成하는 原形質 肉體의 自造法則, 들을 다아라 내었다. 그러타고 그들이 人生의 本質을 아랏거나 혹은 참된 人生觀을 發見한것은 아니다. 우리가 알고저하는 그 人生은 결코 生物學과 心理學의 對象인 人間이 아니라 哲學의 對象인 그 人生이며 또 우리가 人生을 알고저함은 결코 生物學的과 心理學的으로가 아니라오. 즉 哲學的이다. 그럼으로 哲學의 對象인 그 人生은 肉體生도 아니며, 心靈生(Seelenleben), 心靈生과 精神을 區別할것)도 아니고 오즉 그 精神生이며 이 精神生을 아는데서 비로소 人生觀이 이뤄진다고 「바우흐」는 말하였다.(참과 價値와 現實, 五〇〇-五-三頁)

그 人生觀은 肉體生이 아니라 精神生을 아는 것이라 하였다. 精神生이 肉體生에 對해서 優位를 갖게된 것은 主觀的 故意가 아니라 客觀的 必然性이다. 物은 本末이잇고 事는 終始가 잇다. 本은 末이 못되며 末은 本이 못되지

만 本업는 末과 末업는 本이 또한 될 수업다. 이와 가티 精神生과 肉體生이 人生의 本位에서 비록 優劣은 잇을지엄정 서로 서로 썩러져 잇슬 수업다. 肉體生이 잇는 새문에 人生의 精神生이 依托할곳이 잇고 精神生이 잇는 새문에 人生의 肉體生이 意味와 價値를 갖게 된다. 그 肉體生 제대로만은 아무 意味와 價値가 업는 것이다. 人生이 肉體生뿐이 엇드라면 人生이 무엇 새문에 다른 動物보담 낫다 하리오. 만일 人間의 身體構造가 美的이오. 精巧한새문에 人間을 다른 動物들 보담 낫다고 할진대는 美妙하고 精巧한 □笑婦는 人間 中에 第一 낫은 人間일것이다. 짐생(獸)은 크기와 풀을 그대로 먹으나 사람은 고기와 풀을 맛나게 料理해먹으며 또 짐생은 나무 밧과 돌 속에서 그대로 棲息하지만 사람은 나무와 돌을 다듬어 便利코 衛生的으로 짓은 家屋에 居處하는 새문에 사람이 다른 動物보담 낫다고 할진대는 東西式을 다 가진 料理屋에서 飲食을 먹는 놀양패들과 最新式호텔에서 居處하는 俠雜輩들은 人間 中에 上人家일것이다. 그러나 事實은 이와 全혀 反對다. 人間의 身體의 精美와 飲食의 方式과 居處와 制度의 모든 것은 生物學的 法則인 生存競爭에 다른 動物들의 그것보담 穢 不利不便한 點들이다. 그러나 人間이 全動物界에서 生存競爭의 優勝者며 萬物의 靈長이 됨은 人間은 精神生을 갖 엇기 새문이다.